

재난과 무고한 고난

재난과 무고한 고난

2006년 9월 같은 주에 널리 알려지고 사랑 받았던 2명의 호주인이 통탄할 사고로 인해서 사망했습니다. 악어 사냥꾼이라 불리는 스티브 어윈과 경주용 자동차 선수인 피터 브룩입니다.

첫번째 사람은 아내와 두명의 어린 자녀를 남겨뒀고 자신의 나이인 44살보다 젊게 보였습니다. 두번째 사람은 연장자이지만, 한참은 더 살 것으로 기대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들의 삶의 방식이 그들에게 뜻하지 않은 죽음의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9월은 또한 수천의 사람들이 갑작스런 불의의 사고로 죽음을 맞이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는 한 날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2001년에 발생했던 911 사태입니다. 뉴욕에서 일어났던 테러리스트의 공격으로 세계무역센터가 파괴되었고, 그곳에서 일하던 많은 사람들이 유명을 달렸습니다.

그들은 악어와 씨름하던 사람들이 아니었고 자동차 선수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대부분 자신들의 생활을 위해 사무실에서 일하여 벌이를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해가 지나고 여러 해 동안 테러리스트의 활동과 전쟁이 증가하고 더 많은 지진, 대량살상, 총기사고와 다른 사고들로 수천의 다른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중의 많은 사람들은 단지 무고한 희생자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고 전능하시므로 모든 일을 막을 수 있음직하다는 것을 믿는 믿음에 비추어 재난과 고난으로부터 무엇을 얻어야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계시록 8장 6-13 절을 읽기 원하는데요..

6 그 때에 나팔을 하나씩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를

하였습니다.

7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우박과 불이 피에 섞여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땅의 삼분의 일이 타버리고, 나무의 삼분의 일이 타버리고, 푸른 풀이 다 타버렸습니다.

8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삼분의 일이 피가 되고,

9 바다에 사는, 생명이 있는 피조물들의 삼분의 일이 죽고, 배들의 삼분의 일이 부서졌습니다.

10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큰 별 하나가 햇불처럼 타면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삼분의 일과 샘물들 위에 덮였습니다.

11 그 별의 이름은 '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의 삼분의 일이 썩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 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그 물이 쓴 물로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12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삼분의 일과 달의 삼분의 일과 별들의 삼분의 일이 타격을 입어서, 그것들의 삼분의 일이 어두워지고, 낮의 삼분의 일이 빛을 잃고, 밤도 역시 그렇게 되었습니다.

13 그리고 내가 보고 들으니, 날아가는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아직도 세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다."

이와 같은 원색적인 언어는 지금껏 지상과 사람들에게 항상 내려왔던 모든 범위의 재난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은 오해를 불러 일으켰던 책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관한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모든 시대마다 계속하여 반복되어 일어나는 것에 관한 현재의 일입니다. 삶 속에 일어나는 재난들은 죄악된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로 주어지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부분도 우리가 때때로 생각하는 것처럼 무고한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곳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합니다. 뉴욕의 참사와 그 이후 수년간 우리가 보아온 폭력들이 첫번째로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 것은 죄로 인한 세상은 고통과 악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죄는 인류가 자신들의 동료 수천을

살해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있고 그것이 오히려 어떤 점에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라고 믿도록 아주 철저하게 인류를 타락시켰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죄와 악은 실제적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들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끔찍한 일의 가해자들만이 죄인은 아닙니다. 왜 호주인들이 뉴욕 참사에 그렇게도 영향을 받았습니까? 런던이나 발리의 폭탄테러는 또 어떻구요? 매 한 두 해 마다 세상의 다른 곳에서는 그에 못지 않은 더 많은 죽음과 파괴가 있는 재난들을 봅니다. 홍수, 지진, 화산폭발, 질병, 기근, 학살 역시 이런 재난 위에 더해집니다. 2004 년 말에 있었던 엄청난 쓰나미는 완벽한 예입니다. 911 사태 때 죽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과 영양결핍으로 매일 죽어갑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우리의 최악된 마음은 종종 우리와 비슷하게 생기고 비슷한 옷을 입으며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에 더 민감합니다. 같은 관심으로 낯설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장 우리와 같은(동질의)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동정심을 발한다는 사실은 테러리스트만이 죄인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두번째 우리가 재난과 무고한 고난으로부터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삶은 종종 우리가 믿으려 하는 것 보다 훨씬 더 확실치 않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서신을 한번 보겠습니다. 4 장 13 절 부터입니다.

13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일 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14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15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16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이제 확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비행기 안에서 이륙을 하던 사람들이나 그 날 아침 일을 하러 가던 사람이나, 자신들의 죽음을 맞이 했던 주간에 있던 스티브 어윈과 피터 브룩, 모두 다 여러분과 제게 주어진 것과 같은 그들의 한 주간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트기가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의 창문으로 쳐박히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바로 정확히 그런 일이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코앞에 닥친 사고나 재난 앞에서 스스로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소중한 시간이 거기에는 없습니다.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것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뇌리 한 구석에는 어떤 불편한 잠재의식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야기와 연관이 있는 것인데요... 언젠가 시간이 되고, 좀 편안하게 생각할 시간이 있으면, 그걸 풀어보리라 하는, 즉 언젠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럴만한 시간이 얼마나 있을지 모른다는 이런 끔찍한 깨우침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있는지 확실치 않다면 더 이상 기다리지는 마십시오.

세 번째는 재난 그자체로부터는 우리가 결코 알 수 없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사무실 건물이나 쓰나미, 자동차 사고 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재난들이)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그와 같이 통제불능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계십니다.

잠언 15 장 3 절을 보겠습니다.

3 주님의 눈은 어느 곳에서든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을 모두 지켜 보신다.

그것 뿐이 아니고 하나님은 일어나는 일을 통제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21 장 1 절에 이르기를

왕의 마음은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왕을 이끄신다

만약 왕의 마음이 주님의 손안에 있다면 테러리스트의 마음도 역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악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실 때 조차 하나님은 언제나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분이 통제하고 계신다면 왜 선하신 하나님이 악을 허락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오스트리아의 그 지독한 인간이 자신의 딸을 20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성노예로 가두어 두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누가복음 13 장에서 예수님께서 해야만 했던 말씀을 통해 적어도 답변의 일부분이라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 장에 의하면) 근래 이스라엘에는 2 번의 재난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악한 사람의 소행 이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갈릴리 순례자 무리들을 학살했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그랬을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건축에 관련된 어떤 사고였습니다. 1-9 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 바로 그 때에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드렸다.

2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3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4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열여덟 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5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6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7 그래서 그는 포도원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세 해나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 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8 그러자 포도원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 동안에 내가 그 돌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9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 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버리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교훈을 이런 비참한 사건으로부터 이끌어내시나요? 참으로 (예수님의 답변은) 받아들이기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항상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대답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모두도 역시 망한다! 우리도 회개 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고통을 겪는데 영원토록 불이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거름더미에서 그리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가능한 한 심판에 대해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가장 먼저 염두에 두었습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님을 진지하게 받아드리고자 한다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최악의 재앙은 그 심판날에 있을 것이며, 전혀 피할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911 같은 참혹하고 악한 사건 마저도 그것 보다는 오히려 더 낫고 견디기 쉬울 것입니다.

계시록 6 장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하나님의 뜻을 간직한 두루마리를

엽니다. 봉인을 뿜 때마다 큰 재난이 쏟아져 내립니다. 그리고 6 번째에 이르러서는 12 절의 말씀처럼 세상의 마지막이 옵니다.

12 그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뿜 때에, 나는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는 검은 머리털로 짠 천과 같이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피와 같이 되고,

13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서 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떨어졌습니다.

14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사라지고, 모든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15 그러자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세도가들과 노예들과 자유인들이 동굴과 산의 바위들 틈에 숨어서,

16 산과 바위를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17 그들이 진노를 받을 큰 날이 이르렀다. 누가 이것을 버티어 낼 수 있겠느냐?"

무너져 내리는 바위틈을 피해 달아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것에 묻히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야 한다는 생각은 엄청난 두려움입니다. 그분의 진노가 임하는 그날에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방금 읽은 계시록을 통해 삶 속의 재난들은 어떤 면에서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 기억을 되살리게 하는 자비로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자비는 자비인데 너무 혹독한 (대가가 있는)자비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심판을 면하도록 경고하기 위해 그렇게 극단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기신다면 우리는 이런 경고를 정말이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범죄와 재난은 모든 인간의 삶 속에 죄의 실체와 심판의 확실성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심판을 직면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선용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짚고 가십시오.

우리가 만약 심판의 폭풍으로부터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안식처를 향해
그분에게 돌아서지 않는다면 각 개인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재앙이겠습니까?